

보성군, 내년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성공 다짐

내년 5월 대회 앞두고 추진위원회 총회 개최
 각계각층 37명 구성 기술자문·현안 협의 등

보성군은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8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2020년 5월에 열릴 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위촉했으며, 장애인 체육대회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제28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는 군민과 각계각층의 인사 3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체육대회 관련 기술자문, 현안 협의 등을 통해 체전 준비를 지원한다.

특히, 행사 참여 및 자원봉사 등에 동참함으로써 체전 분위기 조성 및 대회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추진 위원장인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이 하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장애인 체육대회도 음식, 숙박업소, 편의시설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체육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문화 행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에서는 오는 11월 29



일 보성차밭빛축제가 38일간 개최되며, 12월 31일에는 2020년을 맞이하는 대규모 새해맞이 축제로 불꽃제의
 거물 한화그룹과 손을 잡고 '보성 울포해변 불꽃축제'를 개최한다.
 보성=안구일 기자

장애인여성 보호 위해
 집 CCTV 설치 지원
 전북지방경찰청

전북 경찰이 지적장애 여성의 집에 대한 폐쇄회로(CC)TV를 설치사업을 통해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고위험군 재가 지적장애여성을 보호를 위해 2014년부터 지방청 및 경찰서, 지자체·사회적약자 통합지원단 등과 협조해 해당 장애인의 집에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설치대상인 고위험군 재가 지적장애여성 가구는 홀로 사는 지적장애여성 가구 또는 지적장애인과 함께사는 보호자가 지적(지체)장애인인 경우다.

CCTV를 설치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그의 보호자가 승낙할 경우 설치될 수 있으며 개인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현관 등 외부에 설치된다.

이날 기준 CCTV가 설치된 고위험군 재가 지적장애여성 가구는 총 307가구 중 305가구다. 미설치된 2가구는 지적장애인이 설치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 21곳, 군산 72곳, 익산 26곳, 정읍 41곳, 남원 40곳, 김제 20곳, 완주 12곳, 고창 13곳, 부안 13곳, 임실 12곳, 순창 7곳, 진안 5곳, 장수 17곳, 무주 6곳 등이다.

설치된 CCTV는 지자체 등이 관리하며 각 경찰서는 6개월마다 해당 가구를 방문해 CCTV 운영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과장이 큰 장애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 재가 지적장애여성 가구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장애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1

화순군 북면,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전달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위해 북면 사회단체 총출동

화순군은 지난 15일 북면 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김장김치를 담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에는 북면 부녀회, 여성의용소방대, 생활개선회, 농가주부회 회원들이 참여하고 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원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조손가정, 부자 세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김치를 담그기 힘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조형재 북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을 모아 김치를 담고 전달



해주신 모든 사회단체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김치를 전달받은 이웃은 물론 지역의 모든 주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읍청년회, 온정의 연탄배달로 이웃 사랑 실천

곡성군 곡성읍청년회(회장 오기근)는 지난 17일 청년회원 및 봉사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거노인(장애인 등) 10가구를 방문하여 연탄(1,500장) 및 백미(20kg) 등 온정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2001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온정의 연탄배달사업’은 청년회원들이 지난 1년간 후원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지역사랑 실천’ 사업이다.

이날 배달에 참여한 오기근 회장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한 연탄”이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함께 해주신 회원들과 주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곡성읍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튼튼한 기둥이 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읍 청년회는 온정의 연탄배달사업뿐만 아니라 20여 동안 어



르신들의 효도관광, 연초 떡국봉사, 관내 자연정화 활동 등 다양한 기여를 통해 곡성읍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인 거주시설에 차량 12대 기부

하나금융나눔재단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장애인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차량 12대를 장애인거주시설 12곳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차량의 노후화 및 부족으로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장애인거주시설 생활 장애인들에게 지원차량을 통한 기능성 강화로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응급상황 대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함영주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에 발맞춰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